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

01



개선배경

자동차 튜닝 승인 시 차고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 튜닝산업 발전 저해



개선내용



차고높이 변경 개조(자동차 튜닝)는 왜 일부 차종만 가능한가요?

개선 전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있는 차량만 차고
높이 개조 가능
(예, 스타렉스, 카니발)

»»

개선 후

안전기준(최대안전경사각도, 차량 중량
등)에 적합한 경우 하이루프 설치 튜닝
승인 가능

▶ 국토교통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및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개정(20.5.27.시행)



개선효과

-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튜닝시장 수요에 유연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개선과정 한마디



캠핑카, 푸드트럭, 특장차 등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차고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한된 튜닝 승인조건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규정」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 신고 시 차고 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은 스타렉스, 카니발 등 일부 차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타 차종에 대해서는 튜닝이 불가하여 자동차 튜닝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실제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의 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울산 북구 매곡3차일반산업단지 내 특장차 제조 및 개조기업은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하이루프 개발을 기점으로 기존 차량(중고차)의 전기장치 등의 편의부품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개조도 진행하고자 하였다. 기존차량에 자율주행 기능부품을 천정에 장착하거나 자율주행 시 실내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차 튜닝 실내면적 확대 시장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고차량을 자율주행자동차로 개조 시 하이루프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량은 해당 부품을 지붕에 장착형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 또는 상업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차체를 높여 부품을 내장하기 위한 천정 개조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는 자동차 튜닝 시장수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량에 대한 차고높이 변경개조가 불가하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2019년 1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

02



개선배경

신기술이 적용된 '원터치 그라인더 결합' 신제품을 개발하여 연마재 기술 특허 등록 및 다수의 경진대회 수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판매 애로



개선내용



신제품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판로 확보가 어려워요!

개선 전

기존 전동그라인더에 대한 안전기준만
있어 원터치 그라인더 결합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불가

개선 후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위한 학술용역 완료



개선효과

- KS 및 국제표준 반영으로 인증을 거친 신뢰도 있는 제품 판매 기대
- 제품인증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신제품 개발기업의 판로개척 사례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03

개선배경

코로나19로 중국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현지파견이 불가

개선내용



코로나로 수출판로가 막혔어요!

개선 전

중국 무역사절단 파견 예정
(20.5월, 7월 중국 장춘, 선양)

개선 후

전국최초 단체장 참여
» 자동차부품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 20. 5월 중국 장춘
- 20. 7월 중국 선양

- ▶ 중구 장춘 수출상담회 : 제일자동차그룹 등 바이어 9개사, 관내 기업체 9개사
- ▶ 중국 선양 수출상담회 : 화천르노자동차그룹 등 바이어 17개사, 관내 기업체 14개사

개선효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중소기업 수출길 마련

- 해외 온라인 무역사절단 상담실적 : 7회 69개사 참여 6,582천 달러
- 비대면 수출상담회 실적 : 3회 97개사 참여, 112,769천 달러

법령의 적극해석으로 40년된 장기 미준공 주택사업 추진

04



개선배경

1977년 도시계획 결정된 사업장인 서부지구를 일부 축소하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편입하려 하였으나, 주택법에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주택지조성사업 구역축소와 주택사업이 각각 추진되어야 하여 사업지연 가능



개선내용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업무추진을 동시에?

개선 전

개별법에 따른 순차적 업무추진

개선 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 승인 동시 추진

- ▶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처리되지 않는 인·허가라 해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등은 별도로 이행하되, 주된 인·허가와 동시에 검토 진행 가능한 것으로 적극 행정 추진



개선효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동시 추진하여 인·허가기간 단축(2개월)으로 비용 절감 및 지역경기 부양
- 40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의 재추진 동력 제공

원도심 내 장기 공사중단건축물 준공

05



개선배경

2007년 5월 공정률 80%상태에서 시행사 부도로 공사 중단된 채 13년간 중구 원도심 중심가에 폐건물로 방치된 민간건축물로 도심 미관 저해 및 원도심 상권 발전 저해



개선내용



도심 중심가 공사중단건축물 이대로 두어야 하나요?

개선 전

건축주, 유치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사
재개 의지 없음

»

개선 후

관 주도 공사재개 추진
- 「공사중단건축물 정비선도사업」 공모
- 건축주 자력정비의사 독려로 공사재개

▶ 국토부 주관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공모 선정으로 건축주 자력정비
2020.4월 사용승인



개선효과

- 원도심 중심 건물의 준공으로 주변상권 활성화 기대
- 인근에 건립 중인 시립미술관 및 역사문화공원과의 연계·시너지 효과로 울산 문화 부흥 중심지로 기대

홍물로 장기방치된 6층 건물, 화려하게 부활

06



개선배경

97년 골조공사만 완료된 채 시행사 부도로 23년간 도심 홍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상권 침체 장기화 해결 필요



개선내용



홍물로 방치된 시장 건축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나요?

개선 전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의 한계로
타 업종 불가

개선 후

도시계획시설(삼신시장)해제
» - 건축물 용도 및 건축한계선 조정 등

- ▶ 시장시설의 건축제한에 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필지별 허용 및 제한용도)을 통한 삼산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개선효과

- 23년간 도심 홍물로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던 건축물을 예식 관련 컨벤션센터로 재단장해 입점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획기적 개선과 인근 삼산웨딩거리와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산단 내 공장부지에 공동식당 설치 규제 완화

07



개선배경

국가산단 내 단독으로 직원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인근 기업 직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상 산업시설구역 내에서는 공동식당 설치 불가로 인근식당이 없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근무자들의 불편 초래



개선내용



직원복지를 위해 국가산단 내 공동식당이 꼭 필요합니다!

개선 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부대시설에 공동급식소 불포함

개선 후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급식소도 포함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2.28.)
부대시설의 범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부대시설에 포함



개선효과

- 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설치 가능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점심이동시간 단축으로 휴게시간 확보

보밀항 포켓 주차장 조성

08



개선배경

주전 보밀항 일원 관광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불편 야기



개선내용



관광지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개선 전

관광지 주차장이 없어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성행

개선 후

인도를 이용한 포켓 노상주차장 조성

»

▶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신속한 노상주차장 조성



개선효과

- 관광객에게 불법 주차 없는 주차 공간과 돌출형 나무데크 설치로 안전하고 눈에 띄는 보행로 제공
- 울산 동구 핵심 해양관광산업 중 하나인 주전 보밀항~현대중공업 방파제 600m 구간에 해양 연안 체험공원 조성 기반 확보

축산업 신규 진입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개선

09



개선배경

울산 울주군 영농인이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면허 발급 지연



개선내용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신규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개선 전

보수교육에만 온라인 교육 허용

개선 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 중단시
» 신규허가·등록 농가에도 온라인 교육 허용

- ▶ 농림축산식품부 개선 :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자 대상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온라인 대체교육(6시간)을 이수한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절차 마련, 축산업 허가자는 미 이수과목(18시간)에 대해 집합교육 중단 해제시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하는 조건으로 허가증 발부



개선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하여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농가의 애로 해소

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지원 업종 확대

10



개선배경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업종 제한으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회 제한



개선내용



제조업 이외의 업종도 지원해 줄 수 없나요?

개선 전

제조업 114개 업종만 지원

개선 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도 확대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9.17.)



개선효과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업종 확대로 다양한 업종의 투자 유치 효과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01



개선배경

중구 내 도서관 부족으로 주택가나 학교 인근 소공원에 생활친화형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소공원 내에는 도서관 설치가 불가하여 개선 필요



개선내용



우리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개선 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
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중 음수장·공중
전화실에 한정

»

개선 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물에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추가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5.8.)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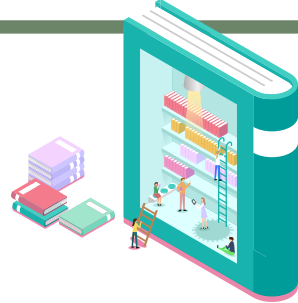
- 중구 어린이공원에 작은도서관 설치
- 도심 속 도서관 탄생으로 아이들에게 뛰어놀며 책도 보는 마을돌봄까지 가능한 공간 조성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개선과정 한마디



오늘날 공원에 공중전화실은 거의 없으며 그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어린이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 이동식 소규모 도서관용시설이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많이 조성되고 있다. 공원은 도심 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관련법에 의하면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인 도서관이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설치가 제한되니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였다. 먼저, 울산의 공원현황을 파악해 보니 울산 전체 공원은 561개소로 이 중 근린공원이 111개소로 20%를 차지하였고 어린이공원 328개소, 소공원 122개소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전체 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약요인으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9년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 과제로 제출하고 그 해 9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대상 12건에 포함되어 온라인투표를 독려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에 검토 부처인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음을 통보 받고 11월 27일 소관부처에서 미수용한 과제 조정을 위한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5월 8일에 법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이 혁신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하며 공원 내 33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 도심공원의 기능과 이용가치를 높이며 무엇보다 누구나 생활 가까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02

개선배경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이 불가하여, 우리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시립 노인병원 1개소로 지원단 수행역량이 부족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이 불투명

개선내용



민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할 수 없나요?

개선 전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가능

개선 후

민간의료기관도 위탁 가능

»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
- ▶ 보건복지부 울산 민간의료기관“제한적 허용” 승인(20.7.29.)

개선효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울산대학교병원)
- 위탁기관 : 울산대학교병원(1단 2팀 6명, 단장1 부단장1 연구원4)
- 위탁기간 : 2020.10.1.~2022.12.31

책값 돌려주기 사업으로 동네서점 살리기

03



개선배경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 및 대형 온라인 서점에 밀려 지역 소규모 서점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 필요



개선내용



동네서점이 사라지고 있어요!

개선 전

울산 시민 독서량 감소 연 5.4권
(전국)15년 9.1권 ⇨ 19년 7.5권
동네서점 쇠퇴
2011년 140개소 ⇨ 2019년 69개소

개선 후

» 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지역화폐)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 읽고, 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는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사업' 시행
(2020. 7월 시행)

- ▶ 지역서점조합과의 협력 MOU체결(20.5월)
- ▶ 공직선거법 저촉 방지를 위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20.5월)
- ▶ 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운영 규정 제정(울산도서관, 20. 6월)



개선효과

- 지역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로 문제집 및 학습참고서 위주의 판매에서 단행본 매출 증가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화폐 확산 효과까지 배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적인 사업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1타 3피!!! 울산·양산 공공하수도 사용협약으로 상생

04

개선배경

양산시 웅상지역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울주군 웅촌면과 양산시 웅상지역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중 인접 마을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

개선내용



하수처리장 악취로 살 수가 없어요!

개선 전

회야하수처리장 인근 대대리 물건너마을
주민 38세대의 악취 피해 호소

»

개선 후

양산시 손실보전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로
물건너마을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한 대대
일반산업단지 조성

- ▶ 양산시에서 징수하는 낮은 하수도 요금을 확인하고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매년 13억 ~20억원의 손실보전부담금 납부 「양산시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사용협약」개정(2019.12월)
- ▶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 2021년~2024년(산업단지 97,470㎡, 이주단지 17,565㎡)

개선효과

- 양산시와의 공공하수도 사용협약을 통한 공영개발 소요재원확보로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산단이주대책으로 웅촌면 대대리 물건너마을 38세대 110여 악취피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 민원해결을 위한 울산·양산 양 도시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체제 구축 성과